

기도

1. 짐승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로 채워지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눔

1. 진리가 아니라 이적을 먼저 따라간 적이 있습니까?
2.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신앙

요한계시록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 박해의 대명사 네로보다 훨씬 더 혹독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다.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에만 국한되었지만,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 전국적이었기 때문이다. 로마 전 제국의 교회들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고, 심지어는 배교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악인의 영원한 파멸과 종말을 보여 주신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참고 견딘 신앙의 선배들이 거하는 영화롭고 존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보여 주신다.



구역 공과

2023년 6월 18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요한계시록 13장 11-18절 (찬23장, 179장)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 세력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승리는 정해져 있음을 믿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말씀입니다(11-15절).

앞 구절의 용과 짐승은 각각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본문의 ‘또 다른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며, 먼저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11-12절a).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와 같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자임을 의미합니다(고후11:14-15). 또한 ‘두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는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을 미혹하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치명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힘을 얻어 거짓 선지자를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며 핍박할 것입니다(12절b).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 **첫째, 큰 이적을 행합니다(13절a)**. 이 짐승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데, 이것은 엘리야 사건을 의미합니다(13절b). 유대인들에게 엘리야 사건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이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적을 따라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이 때 우리가 이적만을 쫓아가면 미혹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먼저 따라가면 미혹되지 않고 진리의 이적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설 것입니다.

둘째,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합니다(14절). 거짓 선지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위하여 우리 마음 속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으로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속의 우상을 찾아 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15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세우고 미혹합니다(15절a).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우상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고, 살 수 없다고 속이며 우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우상을 따라가면 우리의 심령이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15절b). 우리의 심령이 죽으면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우상을 붙잡아 의지하며 신음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힘쓰되, 하나님을 먼저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우선으로 둘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의 수에 대한 말씀입니다(16-18절).

또 다른 짐승은 모든 자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16절). 오른손은 행위를, 이마는 사상을, 표는 통일됨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행위와 사상을 그들의 생각으로 통일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자신의 생각으로 통일하려 하고, 통일되지 않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18절). 6은 세상의 만수로써, 하나님의 완전수 7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수이자 사람의 수인 666은, 사탄의 속임수와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방해하거나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짐승의 수, 세상의 수로는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채울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 의지하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짐승의 수를 세어보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처럼 이적을 행하며 우리를 미혹합니다. 결국 우상을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하여 우리의 심령을 죽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의 행위와 사상을 그들의 생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으로 두고 진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속임수와 방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짐승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를 채우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임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